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경제·복지·노동·과학분야를 주제로 한 중앙선관위 주최 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연합뉴스

장흥군수 재선거 막판 기세싸움 ‘과열’



12·19 재·보선 현장

광주 북구 시의원 송태종 후보 ‘지게 유세’

○오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장흥군수 재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간 유세과정에서 기세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막판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15일 대대읍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유세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명철 장흥군수 후보 지지 연설자로 나선 김한길 의원과 민주당 백도선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박상천 대표가 한 장소에서 유권자들을 가운데 두고 동시에 유세를 퍼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불과 10여m 거리를 두고 300여명의 유권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양 당의 유세 대결은 먼저 연설

을 시작한 민주당 박 대표의 유세 도중, 대통합민주신당이 연설 마감시간을 어겼으며 맞대결을 펼치는 바람에 20여분간 유세 공방이 펼쳐져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또한 곧바로 이어진 장흥도요시장터 연설에서도 양 당 연설차량들끼리 자리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유세가 1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무소속간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는 장흥군수 재선거는 군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민주당과 신당이 본격적인 지원 유세 대결에 나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17~18일 박주선·김충조·한영애 전 의원과

김민석 최고위원이 잇따라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 북구 제3선거구 광주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송태종(45) 후보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손수레를 끌며 득표 활동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는 지게를 진 채 민심을 파고 들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2천여표 차로 석패한 송 후보는 ‘가족 행복 대통령, 주민 행복 송태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5~16일 ‘지게 유세’를 통해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이 만족할 때까지 헌신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이 공존하는 쾌적한 주거공동체, 용봉동 일대 교통요충지 조성, 임동 등 구도심 개발 등을 대표적인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홍=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鄭 “거짓말 명백” 李 “새로운 공작”

대선후보 TV 3차 토론

‘BBK 동영상’ 싸고 치열한 공방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무소속 이회창, 민주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 6명의 대선 후보는 16일 대선 전 마지막 TV 합동토론회에서 BBK 문제와 경제활성화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BBK 동영상’ 공방=특히 이날 공개된 이명박 후보의 “BBK를 설립했다”는 육성이 담긴 2000년 광운대 강연 동영상 내용을 두고 “새로운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하는 이명박 후보와 “거짓말이 드러났다”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나머지 후보들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명박 후보가 선공에 나섰다. 그는 “오늘 동영상 나왔는데, 저는 30억 원 내리는 공갈범의 공갈을 받아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이 재조사를 요청했다”면서 “드디어 투표 3일 전에 새로운 공작이 나오는 것 같다. 대통령은 엄청난 중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끝내 실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두 번 죽었다”면서 “10년전 국가신용 파탄내서 나라경제를 죽였다고 그 당의 후보가 스스로 거짓말임이 드러나면서 신용파탄자임을 드러내겠다”고 몰아부쳤다.

그는 특히 “이 후보는 광운대에 갔느냐.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느냐. 그랬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서 안 된다”고 공격했다. 이회창 후보도 “오늘 새벽에 동영상 보고 충격받았다”면서 “검찰의 발표가 완전히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탈법·편법 후보가 어떻게 국민에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느냐”면서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회창 후보도 “오늘 새벽에 동영상 보고 충격받았다”면서 “검찰의 발표가 완전히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탈법·편법 후보가 어떻게 국민에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느냐”면서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는 나라가 안정돼야 한다. 나라가 불안하고 안정의 기초가 깨지면 안 된다”면서 “경제는 기업이 마음 놓고 뛰게 하는 게 요체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국현 후보는 “한국만이 전세계적 반부패 전선에서 고립돼 있다. 그런 것만 사라지면 500만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이 사라진다”고 했고, 권영길 후보는 “서민소득은 7% 향상시키고 빈부격차는 9% 줄이는 ‘7·9경제’와 400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약속했다. 이인제 후보는 “모든 역량을 불경기 해소와 실업해결에 집중하겠다. 세계대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는 “(親)기업·(親)시장 대통령이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기초 질서, 노사 문화가 바뀌면 GDP는 1% 더 성장할 것이다. 공공부문을 개혁하면 7%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는 “정동영 경제는 노무현 경제와 다르다. 핵심은 전문성과 인사”라면서 “경험 많고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경제드림팀을 만들어 확실히 뒷받침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는 나라가 안정돼야 한다. 나라가 불안하고 안정의 기초가 깨지면 안 된다”면서 “경제는 기업이 마음 놓고 뛰게 하는 게 요체다.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당-손학규·추미애 한나라-박근혜·정몽준

조연 대결도 ‘불꽃’

대선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정국에 선 주연 못지 않은 조연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고 있다.

누구보다 화려한 조연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대선후보 경선 기간 이명박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박 전 대표는 경선 직후 ‘깨끗한 승부’로 후보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대선을 16일 앞두고 한나라당 입당을 전격 결정한 정몽준 의원도 막판 주목받는 ‘스타급 조연’이다. 이 후보

에 대한 독자적 지원유세는 물론이고 14일 ‘이명박 특검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을 때에는 국회 본회의 장에도 모습을 나타내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김 의원에 비해 손학규 전 기자시장은 훨씬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손 전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국을 순회하며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해내고 있다.

‘여우 조연’으로는 최근 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금실 전 법무장관이 눈에 띈다. 같은 여성인 추미애 전 의원은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로 탈락하긴 했지만 정치적 재기에는 성공했다는 평이다. /연합뉴스

차 향한 마지막 구매?

晨, 14일 밤 예고없이 찾아가... 만나지는 못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지난 14일 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자택을 예고없이 찾아가던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BBK 동영상”과 관련, 남대문로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제 경북지역 유세를 끝내고 잠시 상경해 저 혼자 박 전

대표를 집으로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심을 호소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주 좋은 행동을 해주기를 호소하고 싶어서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를 만난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 분들을) 만나지 않았

다”면서 “박 전 대표와 약속이 돼 찾아간 것은 아니며 이후 다시 박 전 대표를 찾아갈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4일 밤 박 전 대표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가던 뒤 자택 경비를 통해 박 전 대표에게 인터폰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이 없어 20여 분쯤 기다리다 밤 10시경 다시 KTX를 타고 대구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왜 약속도 잡지 않고 급작스럽게 박 전 대표를 만나려 했으며, 또 만나서 요청하려 했던 ‘아주 좋은 행동’은 무엇이었는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순천대학교 200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순천대학교 미래를
창조하는 세계로!

합격하신 중상대학, 현상대표 국립대학,
광주, 전남, 제주권 유일! 신학대학중심대학!
1,300여명이 넘는 국학사범 수험대학!

4년간 등록금·기숙사비 전에 지원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 도량장학제도 안내

1. 등록금 지원 대상자
2. 장학금 지급 방법
3. 기숙사비 지원 방법
4. 기타 문의사항

국립순천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어드립니다.